

 <div>금융위원회</div>		<div>보도설명</div>			
 <div>서민금융진흥원</div>					
보도	배포 후 즉시		배포	2021.7.19.(월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 석 란(02-2100-2610)		담 당 자	이 정 찬 사무관 (02-2100-2614)	
	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장 김 진 휘(02-2128-8080)			박 장 구 부장 (02-2128-8085)	

제 목 : 햇살론뱅크는 소득, 부채, 연체이력 등 상환능력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와 은행 자체 심사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(아시아경제 7.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☐ 아시아경제는 7.19일자 「출시 일주일 앞둔 서민전용 ‘햇살론뱅크... 기대반 우려반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형식적 서류절차만 거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, 대위변제를 상송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☐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90%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공급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소득, 부채, 연체이력 등 상환능력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가 이루어지며,
- 은행도 10%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바, 은행 자체의 심사를 통해 대출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.

□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, 저신용·저소득자 대상 금융상품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대위변제율(연체율)을 보이게되며, 예상대위변제율 등을 감안하여 공급규모, 보증료율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.

○ 햇살론17의 경우, 출시 초기단계(19.9월 출시)로 연체사례가 점차 발생하면서 대위변제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□ 정부는 저소득·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지원을 강화하면서도, 서민 금융진흥원을 통해 대위변제심사, 대위변제 이후 연체자에 대한 구상채권 관리*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* 연체자의 경우 대위변제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존재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해외감염병 NOW
--	---	---	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